
大韓氣功醫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KIGONG MEDICAL SOCIETY

VOL. 2. NO. 1. 1998.

大韓氣功醫學會

● 氣功醫學을 통해 韓醫學 發展에 기여하기를...

2000년을 바라보는 새시대에 大韓氣功醫學會가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 해온 끝에 이렇게 두 번째 學會誌를 발간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氣는 본래 宇宙의 모든 變化象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宇宙에 모든 사물은 기의 운동 변화로부터 생성, 소멸되며 진보해 나가고 있고, 인체의 생명 활동도 똑같이 기로부터 생성, 소멸되면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의 작용을 생명 역학적으로 활용하여 의학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調氣療法인 한의학에 매우 기본적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현상의 기본 요소인 氣의 작용을 生命力學으로 체계화시킨 학문으로 일찍부터 韓醫學의 한분야로 氣功學이 연구 개발 되었고 의료분야로 특화시킨 것이 기공의학일 것입니다.

국내의 한의학계에서는 이러한 氣에 대한 醫療分野의 연구가 매우 부진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의 신비가 조금씩 과학적으로 접근해가면서 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공의학회가 창설되면서 우리 한의학계에서도 기공의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은 앞으로 기공에 대한 분야를 한의학에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종래 針灸學이나 韓藥物學 중심으로 학문의 활용이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에 각종 물리치료법이나 再活醫學, 導引按蹻, 氣功推拿 등 다양한 치료법으로 의료영역이 확대되고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학문 발전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참신하며, 시대에 맞는 학문의 발전이 요구되는 시기에 氣功學의 학문 체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氣功醫學會의 역할은 대중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學會誌 2卷의 발간에 그치지 말고 더욱 더 의료기공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大韓氣功醫學會가 우수 치료의학 보급에 선도기능을 발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 4.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최 환 영**

發 刊 辭

韓醫學에서 모든 病의 발생과 진전은 인체의 체내외에서 생기는 요인인 邪氣(사기 즉 風寒暑濕燥火)의 強弱에 달려 있으며 人體가 사기에 대하여 抵抗하는 강도, 즉 “正氣(正氣)의 盛衰”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역량이 결정된다고 본다. 인체의 정기가 손상되면 저항능력이 低下되고 이어 사기가 침입할 때 병이 생기니 疾病을 豫防하는 방법으로 정기를 북돋우어 신체를 조절하고 強化시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抗病能力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氣功修練을 하면 조절 능력이 강해지고, 適應力이 좋아지며, 抗病力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氣’를 여러 가지 生理學的 지표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내분비, 면역계통으로 연구하면 기공수련이 더 이상의 신비가 아니라 과학적인 臨床用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는 있는 아주 흥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中國에서는 1997년 10월 高涵森이 氣功治療를 하고 있는 林厚省의 外氣가 變造된 低周波의 赤外線 照射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후에도 실험과 측정을 통하여 外氣의 성분이 적외선 외에도 정전기, 자기, 감마선, 미립자, 양자 등의 수많은 정보를 검출해냄으로써 ‘기’를 하나의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20~30만의 기공사 및 기공의사가 임상에서 치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요즈음의 기공 세미나는 이미 기공사나 기공의사들이 功法이나 임상효과를 연구하는 단계에서 떠나 최첨단의 과학인 핵물리학자나 생화학, 생물리학자들이 기공이 과연 유전자 단백질(DNA)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냐는 쪽에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미 각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근 일본에도 기공연구소가 설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의계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理’에 너무 치중하고 ‘기’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 ‘기’의 규명이나 연구는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를 연구하는 것은 기공의 효과에 대한 입증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이나 정신과학의 핵심을 파헤치는 작업으로서 큰 의의

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현상도 무조건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임상효과라도 빨리 연구에 착수하여 그 실체를 벗긴다면 현대의학의 해부학을 바탕으로 생화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서 벗어나 생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생물리화학적 입장에서 의학의 새로운 흐름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공을 임상적으로 응용하는데 있어서는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음양오행학설과 경락학설을 기초로 이해해야하며 치료는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병태와 체질 그리고 개성에 따라 공법을 처방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요즈음 한국에 불고 있는 기공붐도 의학적으로 연구되어 그 임상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에서는 그동안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학회지 2권을 내게되었습니다.

한의학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직접 몸으로 수련이 되지 않고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양적으로 많은 실적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공의학회지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의계에서는 좀 더 관심과 애정으로 학회지를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끝없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창간호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학회 기공의학회 회장 김 기 옥

大韓氣功醫學會誌

第2卷 第1號

1998年

大韓氣功醫學會

目次

氣功醫學을 통해 韓醫學 發展에 기여하기를. 1

발간사 2

臨床論文

- 氣功病에 關한 研究
김경환 · 지정옥 · 박재수 · 김길수 · 김태우 · 필감매 · 김재균 7
- 肩臂痛의 手指相應療法과 氣功療法에 대한 臨床的 研究
나삼식 · 김성삼 · 박재수 · 이기남 25

文獻考察

- 道家를 重心으로 본 養生法 歷史
이승훈 · 이호승 35
- 養生導引法과 現代運動療法의 比較 考察
최희석 · 이기남 57
- 氣功修練時의 意念에 대한 考察

윤나다 · 김경호	91
● 奇經八脈과 八脈八會穴에 關한 研究 이기성 · 윤종화	103
● 心積과 腎積에 대한 文獻的 考察 이재흥 · 지정옥 · 김경요 · 이기남	119
● 氣功外氣治療에 대한 概觀과 考察 이현경 · 김경환 · 윤종화	133
● 氣功修練의 基本的 分類와 針灸學과의 關係 김태우 · 윤종화.....	153
● 氣功의 點穴療法에 대한 考察 허재석 · 박현국 · 이찬구	187
● 氣功에 對한 科學的 研究 側面의 考察 김준한 · 안병상 · 류영수	211

大韓氣功醫學會 會則 239

중앙 위원회 명단 및 주소록 243

지부장 명단 및 주소록 244

대한기공의학회 명단 및 주소록 245

학회지 논문 투고 요령 251

기공을 수련한 의료인들을 모집합니다... 252

